

2024년 하반기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협력기관 간담회 개최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는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1월 20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지하 1층 '레이크 파크 볼룸 1'에서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직업병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센터의 운영성과 및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 경기남부권역 고용노동지청 및 산업보건센터, 협력병원 및 협력기관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주요 사례 발표 △ 외부 특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사례와 쟁점) △ 기념촬영 및 석식 교류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협력기관 간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직업병 예방과 관리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번 행사가 직업병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는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협력기관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운송 물류센터 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 권고 활동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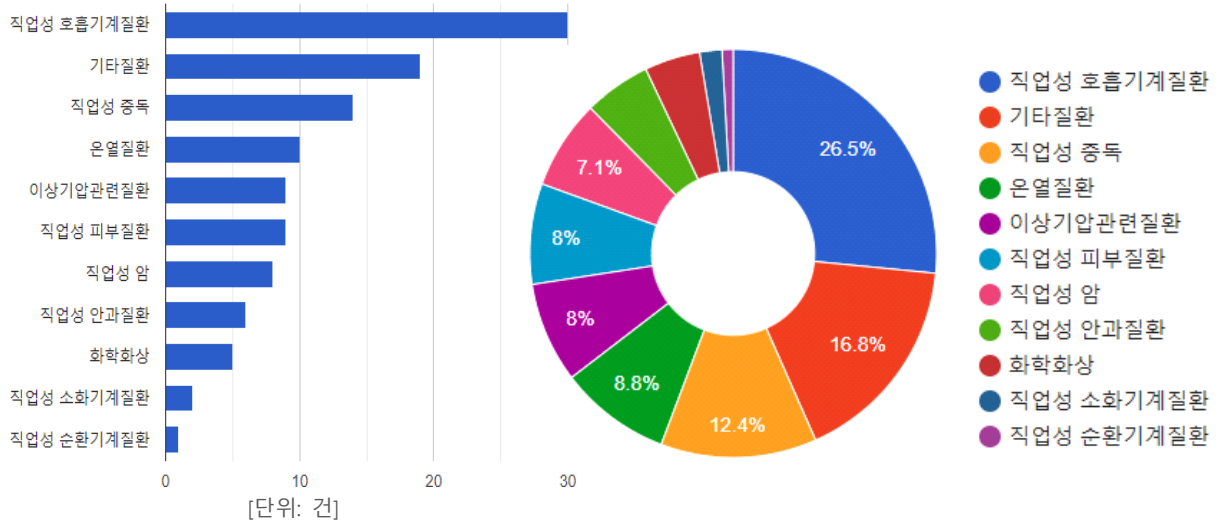


고용노동부와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는 운송 물류센터를 방문해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및 야간 분류·배송기사의 건강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와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는 관할지역 내에 위치한 운송 물류센터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방문하여 사업장의 근로현황 및 건강관리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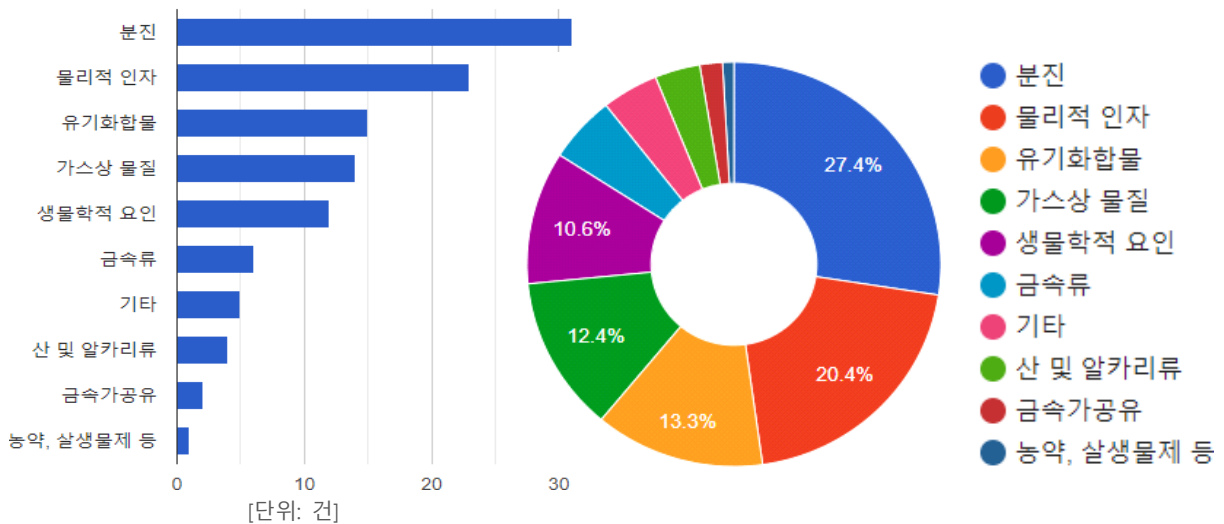
운송 물류센터에서는 많은 배송기사들이 대리점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어, 건강관리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무량과 시간 조절이 어려운 구조로, 과도한 야간 업무와 배송량 부담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시간 추가 근로를 고려해 주간 최대 근무 시간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직업병 사례 통계 -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2024년 10월 (2024.10.01.~2024.10.31.)

<질환별>



<유해요인별>



202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부직업병안심센터에 총 113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질환별로 분류하면 직업성 호흡기계질환 30건, 기타질환 19건, 직업성 중독 14건, 온열질환 10건, 직업성 피부질환 9건, 이상기압관련질환 9건, 직업성 암 8건, 직업성 안과질환 6건, 화학화상 5건, 직업성 소화기계질환 2건, 직업성 순환기계질환 1건 등이었습니다. 추정 유해요인별로 분류하면 분진 31건, 물리적 인자 23건, 유기화합물 15건, 가스상 물질 14건, 생물학적 요인 12건, 금속류 6건, 기타 5건, 산 및 알카리류 4건, 금속가공유 2건, 농약, 살생물제 등 1건 등이었습니다.

직업병 사례

“석공업 중 돌가루 노출에 의해 발생한 폐암”

60대 남성으로, 40년간 비석 만드는 석공일 하신 분이다. 주로 화강암과 오석(남포오석)을 가공하고 다듬는 일을 하였다. 업무를 하며 지속적으로 돌가루에 노출되었으나, 마스크나 안경과 같은 보호구는 습기가 차고 작업에 방해가 되어 착용하지 않았다. 2009년도 가랑부터는 일이 없어 그만두었다. 12년 전 녹색병원에서 진폐증 판정받았고, 작년 초 폐암 진단받았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분진이란 고체의 무생물 입자를 말하고, 폐의 조직 반응이란 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를 말한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하다.

진폐증의 발생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 요인들로 과거 직업,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개인차,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신장, 분진의 신선도 등을 들 수 있다.

진폐증의 원인물질들로는 이산화 규소(silica, SiO₂), 규산염(silicates), 석탄, 금속, 유기물 등이 있다. 이 중 이산화 규소(silica, SiO₂)는 돌, 모래 등의 주성분으로 석공들에게 규폐증을 일으키는 주 성분이다. 석공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직군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이란 폐에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무절제하게 증식하여 종괴(덩어리)를 형성하고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것을 말한다. 직업에 따라 석면이나 크롬 등의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폐암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광물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으로는 광업(폭파·굴진·착암·채광작업·광석운반·석탄작업·분쇄), 조선소, 도자기 및 요업, 주물업, 유리제품 제조, 연탄 제조, 보석가공, 전기제품제조업 등이 있다. 규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는 암석 채굴 또는 가공 작업·연마작업·분사기를 사용하는 주물공장·건물청소작업·내화벽돌 제거 작업·요업·보일러 청소·자거나 에나멜 제조·모래 연마작업 등이 있다.

분진은 주로 호흡장애를 유발한다. 분진이 상기도에 침착하게 되면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질환, 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분진이 말초기도, 폐포, 임파계에 침착된다면 진폐증, 폐암, 폐렴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건강장해들을 발생시키는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여러 관리 대책들이 필요하다.

첫번째로, 개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작업장 내 목욕시설 및 세탁시설을 마련하여 작업자들이 작업 후 세안 및

목욕, 양치질을 할 수 있게 해야하며, 오염된 작업복을 입고 퇴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작업 중에는 항상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두번째로, 정기건강진단이 실시되어야 한다. 채용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작업자가 호흡기질환이나 결핵에 대한 과거력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작업장에서의 분진 폭로정도, 작업자의 연령, 과거 건강진단 기록 등을 보관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건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직 후에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의학적 감시를 해야 한다.

세번째로, 작업환경 관리가 필요하다. 작업장의 분진 농도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광업같은 경우 연속적으로 살수를 하여 공기 중에 떠있는 분진의 비산을 감소시키고, 작업장 바닥에도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여 가라앉은 분진의 재발산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국소배기장치와 전체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물질을 독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거나 작업 공정을 변경해야 한다. 석공에서는 작업방법의 습식화, 노출량 저감을 위한 보호구 착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N의학정보 , 서울대학교병원 - 진폐증 [pneumoconiosis]

서울아산병원 질환백과 - 폐암

대한산업보건협회. 분진발생 작업장 보건관리 - 안전보건교육일지

“풀베기 작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60대 남성으로 풀베기 작업 중 발생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에 의해 사망한 사례이다.

2024년 7월 1차 풀베기 작업 시에도 풀독 증상이 있어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한 이력이 있었다고 한다. 2024년 8-9월 중 2주간 수행된 2차 풀베기 작업 시에도 가려움 증상 생겼다고 한다. 9월 3일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약을 처방 받고 9월 11일까지 약을 복용하며 근무하였다. 9월 12일, 작업을 쉬는 날임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9월 13일, 아침에 단장이 같이 출근하자는 전화를 받았지만 몸이 아파 일을 나갈 수 없다고 한 후 결근하였다.

9월 17일, 추석 연휴가 되어서도 차례를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들이 119에 신고하여 강원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39.3도로 고열 측정되었고, 신체 검사상 양측 팔, 다리에 피부 발진이 관찰되었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 및 신장, 간 수치 상승, 염증 수치 상승 소견 보여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9월 18일 중환자실으로 입원하였다.

<p>해당 작업 위치도</p>	<p>해당 위치의 작업장소 사진</p>
<p>2024.10.22. 오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방문</p>	<p>2024.10.22. 오후 해당 사업장 담당자 면담</p>
<p>2024.06.20. 재해자 작업모습</p>	<p>2024.06.20. 당시 작업 장소</p>

9월 19일 외부 검체 RT-PCR 상 SFTS 양성 판정 받은 후 치료를 계속했으나, 9월 23일에 사망하였다. 재해자의 사망 사인은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없는 점을 미루어보아 SFTS로 추정하였다. 산속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SFTS의 감염 원인인 진드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소피참진드기(또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언론에 종종 살인진드기라고 보도된다.

감염된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이 그 진료과정에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람 간의 감염 전파도 발생할 수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또는 작은소참진드기) 등에게 물린 후, 1~2주간의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1~3일 넘게 고열(38~40°C까지)이 지속된다.

이때 혈액검사를 해보면 환자의 혈소판이 감소해있고 백혈구수치도 감소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구역감, 구토 및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고, 림프절이 커진 채로 1~2주 이상 지속되기도 한다.

다발성 장기부전(콩팥기능 저하, 혈압저하 등)이나 신경학적 증상(어지러움, 섬망, 두통, 발작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사망률이 높은 중한 병이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 예방의 최선은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풀숲에 들어갈 때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소매를 단단히 여미는 것이 좋다.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해서 입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집에 돌아와서는 즉시 옷을 털은 후 벗어 바로 세탁하시고, 목욕을 하시는 것이 좋다.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마시고, 풀밭위에 그대로 눕는 것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do?cntnts_sn=5233

그 외 직업병 사례들

직업성 호흡기질환

- ◆ 광산 채탄업무 종사자의 광물성 분진 노출에 의한 폐 선암
- ◆ 석회공장 운전자의 광물성 분진 노출에 의한 선암증
- ◆ 인쇄업 종사자의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
- ◆ 석공업 종사자의 돌가루로 인한 폐암

직업성 소화기질환

- ◆ 냉난방기 관련 설비 조작원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에 의한 독성간질환

직업성 중독

- ◆ 기계정비사의 메탄올 노출에 인한 독성효과
- ◆ 페인트도장공의 시너로 인한 급성 신부전

직업성 피부질환

- ◆ 수의사 보조원의 동물 물림 사례

이상기압관련질환

- ◆ 잠수어업인의 고기압으로 인한 잠함병

직업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

직업병엔 도너리(Don't worry)가 같이 합니다.



직업병 안심센터

대상

업무와 관련해 불편한 증상, 질환을 경험한 분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발생한 이상 증상 또는 질식, 열사병 등)

호흡기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폐질환, 천식 등)

신경계질환

(말초신경병증, 파킨슨증후군 등)

피부질환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간질환

(독성간염 등)

직업성 암

(폐암, 혈액암, 비인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무엇을 도와주나요?

- 직업성질환 진단, 원인파악
- 직업병 예방 및 환경개선 지원
- 산재요양 필요여부 상담 등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초기 진료비 일부 지원
- 이후 직업성질환 진단 비용 일부 지원 (단, 외상성사고, 근골격계질환, 소음성난청 등은 제외)

문의 ☎ 1588-6798 (전국대표번호)

인천 직업병 안심센터
인하대병원
☎ 032)890-0843

강원 직업병 안심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033)741-0342

경기남부 직업병 안심센터
아주대학교병원
☎ 031)219-5645

경기북부 직업병 안심센터
한양대구리병원
☎ 031)560-2725



중부 직업병 안심센터
www.kodsc.org

